

#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접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논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49%)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원칙으로 “국민” 집단과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포기했다는 대한민국의 ‘개방성’ 을 상징해야 할 것은 재한 외국인의 약 23%를 차지하는(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다. 결혼 이민이 2000년대 초반에 급증한 관계로 결혼 이민자들이 참여 정부 시절 이후부터 국가의 온정주의적 ‘보호’ 와 ‘배려’ 의 대상이 되었다. ‘단기 체류 강요’ , ‘불법 체류 시 단속 및 추방’ , ‘가족 동반 금지’ , ‘직장 이동 억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자세다. 이와 같은 자세가 취해진 배경에는 결혼 이민자들의 높아져 가는 비중이 있다. 결혼 이민자가 이미 2007년에 7만 5천 명을 넘었다. 연간 다문화 결혼 비율이 그 해에 14%를 초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에서 약 35%가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뒤에는 이미 2세가 거의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에 대한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온정주의이지만, 미흡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이다. 말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간다’ 고 하지만 모자라는 예산을 주로 결혼 이민자의 ‘동화 사업’ 에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노력’ 을 과시하려는 각급 단체·기관들은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을 연다는 소식을 경쟁적으로 매체에 올린다. 거기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한복을 입혀 ‘윗분’ 에게 절을 올리게 하는 등 ‘우리 전통문화 교육’ 을 시켜 ‘모범적인 한국 며느리로 만들었다’ 고 자랑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은 사실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도 않고 태부족하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민족’ 이나 ‘혈통’ 이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이 이 땅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화’ 시킬 필요가 있는가?

### [나]

Multiculturalism relates to communities containing multiple cultures. The term is used in two broad ways, either descriptively or normatively. As a descriptive term, it usually refers to the simple fact of cultural diversity: it is generally applied to the demographic make-up of a specific place, sometim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g. schools, businesses, neighbourhoods, cities, or nations. As a normative term, it refers to ideologies or policies that promote this diversity or its institutionalisation; in this sense, multiculturalism implies a "positive endorsement, even celebration, of communal diversity, typically based on either the right of different groups to respect and recognition, or to the alleged benefits to the larger society of moral and cultural diversity". Such ideologies or policies vary widely, including country to country, ranging from the advocacy of equal respect to the various cultures in a society, to a policy of promoting the maintenance of cultural diversity, to policies in which people of various ethnic and religious groups are addressed by the authorities as defined by the group they belong to.

However, two main different and seemingly inconsistent strategies have developed through different Government policies and strategies: The first focuses on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Interactions of cultures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cultural differences to communicate and interact to create multiculturalism. Such approaches are also often known as interculturalism. The second centers on diversity and cultural uniqueness. Cultural isolation can protect the uniqueness of the local culture of a nation or area and also contribute to global cultural diversity. A common aspect of many policies following the second approach is that they avoid presenting any specific ethnic, religious, or cultural community values as central. Multiculturalism is often contrasted with the concepts of assimilationism and has been described as a "salad bowl" or "cultural mosaic" rather than a "melting pot".

**[다]**

동양의 후진성, 퇴행성, 서양과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명제는, 19세기 초엽에 인종차별이론의 생물학적 근거를 둘러싼 여러 관념과 가장 쉽게 연결되었다. 따라서 큐비어의 <동물계> 고비노의 <인종불평등론> 그리고 로버트 녹스의 <흑인종>과 같은 책에 묘사된 인종의 분류는, 잠재적인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자발적인 지지자를 발견했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 관념에는 선진적인종과 후진적 인종 곧 유럽-아리아인종과 동양-아프리카인종이라고 하는 구분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강조하는 다윈주의의 이유가 부가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 친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의 쌍방에 의해 논의된 제국주의 문제 전체가 인종, 문화, 사회를 선진적인 것과 후진적인 것(곧 종속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이원적인 유형학을 추진시켰다. 예컨대 존 웨스트레이크의 <국제법의 재원칙>(1894)은 '비문명적'이라고 하는 (이말은 오리엔탈리즘적인 가설의 내실을 특히 잘 전달하고 있다)이름으로 불리는 지구 위의 여러 지역이, 선진적인 여러 권력에 의해 병합 또는 점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얼마 전,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초대 손님으로 젊은 여성 가수 한 명이 나왔다. 그 가수의 외모에 대해서 진행자들이 한 마디씩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

**진행자** (가수에게) ○○○씨, 참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가수** 고맙습니다.

**진행자** 아니, 동남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다고요.

**청중** (터져 나오는 웃음)

코미디 소재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볼 때, 이 같은 웃음은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적 특색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는 경제력의 순위에 따라 타 민족을 위계짓는 일에 익숙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는 아주 상반된 범주에 속하는 두 종류의 '외국인'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 하나는 '손님'으로서의 외국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력'으로서의 외국인이다.

**[마]**

오늘날의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따라서 일종의 헤겔식의 '부정의 부정', 일국 자본주의와 국제주의적·식민주의적 단계가 지난 후 다다른 세 번째 단계의 자본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처음에 (물론, 이상적으로) 자본주의는 국제무역(주권적 국민국가들 간의 무역)을 수행하며 민족국가 경계 내에 존재했다. 이어 식민국화된 나라가 피식민국화된 나라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복속시키고 착취하는 식민주의가 출현한다. 마지막 단계인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차별화된 특징은 식민국은 사라지고 피식민국만 남게 된다는 역설이다. 식민 권력은 더 이상 국민국가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기업이다. 이러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적 발현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는, 식민인들이 피식민인들과 그들의 그 풍습을 면밀히 '연구'하고 '존중'해야 할 원주민들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국지 문화를 취급한다. 즉,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 간의 관계는 서구의 문화 제국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와 정확히 닮아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식민국이라는 중심축이 소멸된 식민화라는 역설을 수반한다면, 다문화주의는 자신의 특수한 문화에 뿌리를 두지 않은 채 국지 문화를 존중하고 또는 유럽 중심주의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인종주의가 부인되고 전도된, 즉 '거리감을 유지하는 인종주의'이다. 그것은 타자를 자기 완결적인 실제적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타자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다문화주의자는 해당 공동체에 대해 그의 특권적, 보편적 입장에 의해 가능해 진 거리를 유지한다. 다문화주의는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특수성을 소거시킨 초월적 차원에서의 인종주의이다(다문화주의자는 직설적인 인종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의 문화의 특수한 가치를 타자와 대립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입장을 보편성의 특권적인 공백 지점에 위치시킨다. 이 지점에서 그는 다른 특수한 문화들을 평가하고 평가절하 할 수 있다. 타자의 고유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존중은 바로 그 자신의 우월성을 역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 논술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시오.

[301자 이상 ~ 400자 이하 : 배점 20점]

**<문제 III>**

제시문 [마]의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한계를 비판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40점]

[ 끝 ]